

해방자이시자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신 그리스도

7/28 월

롬 8:2, 16

2 왜냐하면 생명의 영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.

16 그 영께서 직접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증언하십니다.

살전 5:17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.

갈 2:20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.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,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.

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.

빌 2:13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안에서 운행하시어, 여러분이 뜻을 세우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행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.

빌 4:12-13

12 나는 비천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고 풍부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.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, 풍부하거나 궁핍하거나, 각각의 일과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.

13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.

겔 36:26-27

26 내가 또한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 주며, 너희 육신에서 돌 같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고기 같은 마음을 주겠다.

27 내가 너희 안에 나의 영을 넣어 주어 너희가 내 율례대로 행하게 하리니, 너희가 내 규례들을 지켜 준행할 것이다.

7/29 화

롬 8:29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기 때문입니다.

그것은 그분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만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.

엡 4:11-12, 16

11 그분께서 직접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, 어떤 사람들은 신언자로,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파자로, 또 어떤 사람들은 목자 및 교사로 주셨습니다.

12 이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,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.

16 그분으로부터 온몸은 그 풍성한 공급을 해 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,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.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.

고전 12:13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모두 한 영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침례 받았고, 또 모두 한 영을 마시게 되었습니다.

엡 5:30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.

렘 31:33-34

33 그러나 그날들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다음과 같다. 여호와와의 선포이다. 나는 내 법을 그들의 속부분들에 두고, 그들의 마음에 그것을 기록할 것이다.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,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.

34 그들 각 사람은 자기 이웃과 자기 형제에게 여호와를 알라고 가르치는 일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.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부터 그들 가운데 가장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. 여호와와의 선포이다. 그것은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고,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.”

7/30 수

롬 8:4-6, 9-10

4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.

5 육체를 따르는 사람들은 육체의 일들을

생각하지만,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영의 일들을 생각합니다.

6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,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.

9 그러나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, 여러분은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.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,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.

10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,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, 영은 의 때문에 생명입니다.

시 23:3-4

3 내 혼을 소생시키시며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들로 안내하시네.

4 제가 비록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.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저를 위로해 줍니다.

창 5:24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므로 그가 있지 않았다.

7/31 목

롬 8:13-16, 23, 26-28

13 여러분이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, 그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.

14 왜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.

15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노예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, 아들의 자격의 영을 받았습니다. 이 영 안에서 우리는 “아바 아버지!”라고 외칩니다.

16 그 영께서 직접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증언하십니다.

23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영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 자신들도 속으로 탄식하며 아들의 자격,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간절히 기다립니다.

26 이와 같이 그 영도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.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, 그 영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

직접 중보기도 하십니다.

27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은 그 영의 생각을 아십니다. 그 영께서 하나님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.

28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,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함으로써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압니다.

8/01 금

롬 8:31-32, 34

31 그렇다면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?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,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?

32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 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?

34 누가 감히 유죄판결 하겠습니까?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 아니라 살아나셨고, 지금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.

고후 5:14-15

14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. 우리가 단정하는 것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으므로,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.

15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을 향하여 살지 않고, 자기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을 향하여 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.

히 8:10 그날들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다음과 같다. 주의 말이다. 나는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안에 넣어 주고, 그들의 마음에 그것들을 새길 것이다.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, 그들은 나에게 백성이 될 것이다.

렘 32:40-41

40 그리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어 그들에게서 돌아서지 않고 그들을 선대하며,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이 나에게서 돌아서지 않게 하겠다.

41 나는 그들을 선대하는 것을 기뻐하며, 내 온 마음과 온 혼으로 신실하게 그들을 이 땅에 심겠다.

8/02 토

롬 8:35,37-39

35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? 환난이겠습니까? 곤경이겠습니까? 박해이겠습니까? 굶주림이겠습니까? 헐벗음이겠습니까? 위험이겠습니까? 칼이겠습니까?

37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해 넉넉히 이깁니다.

38 나는 확신합니다.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들이나

39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,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.

롬 5:5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.

렘 31:3 여호와께서 멀리서 내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셨다. “참으로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였기에 내가 너를 자애로 이끌었다.

호 11:4 사람의 줄들로, 사랑의 끈들로 나는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그 턱의 멍에를 벗겨 주는 이 같았으며 부드럽게 그들을 먹였다.

시 23:5-6

5 주님께서 저의 대적들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제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니 제 잔이 넘칩니다.

6 제 평생에 선과 자애가 분명 저를 따르리니 저는 여호와의 집에 평생토록 거주하겠습니다.

8/03 주일

사 61:1-11

1 주 여호와와 영께서 내 위에 임하시니 이것은 여호와께서 나에게 기름 부으시어 고통받는 이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나를 보내시어 마음 상한 이들의 상처를 싸매고 포로

된 이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, 묶인 이들에게 눈을 열어 줌을 선포하며

2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해와 우리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는 날을 선포하게 하시고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며

3 시온에서 슬퍼하는 이들에게 재 대신 머리 장식을 슬픔 대신 즐거움의 기름을 칠할 영 대신 찬양의 겹옷을 주게 하려 하심이다. 그리하여 그들이 의의 테레빈나무라, 여호와께서 심으신 이들이라 불리게 하여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.

4 그들은 오랫동안 폐허였던 곳을 재건하고 전에 황폐하였던 곳을 세우며 폐허가 된 성들을, 대대로 황폐하였던 곳들을 보수하리라.

5 낫선 이들은 서서 너희의 양 떼를 먹이고 외국인의 아들들은 너희의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되리라.

6 그러나 너희는 ‘여호와의 제사장들’이라 불리며 사람들은 너희를 ‘우리 하나님의 사역자들’이라 부르리라. 너희는 민족들의 재물을 먹고 그들의 영광을 가지고 자랑하리라.

7 너희는 부끄러움 대신 두 배의 몫을 받고 수치 대신 자기들의 몫을 받고 환호하리라. 그러기에 그들이 자기 땅에서 두 배의 몫을 차지하리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에게 있으리라.

8 “이는 나 여호와가 정의를 사랑하고 부당한 탈취를 미워하는 까닭이라. 나 그들에게 신실하게 보상해 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라.

9 그러면 그들의 씨가 민족들 가운데, 그들의 자손이 백성들 가운데 알려지리니 그들을 보는 모든 이가 그들이 여호와께 복 받은 씨임을 인정하리라.”

10 내가 여호와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내 혼이 내 하나님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그분께서 내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의의 겹옷을 돌려 주신 까닭이니 나는 마치 제사장의 머리 장식을 한 신랑 같고 제 보석으로 단장한 신부 같아라.

11 땅이 싹을 내듯 동산이 거기에 뿌려진 것들을 솟아나게 하듯 주 여호와와 의와 찬양을 모든 민족 앞에서 솟아나게 하시리라.